

기습 물폭탄에 도로위 차량 아찔한 고립



27일 오전 광주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 뒤편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북구청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있다. /최혜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 도심 침수 피해 현장

대부분 상습침수지 대비 안돼
“배수구 낙엽만 치웠더라도...”
주민·상인들 시·자치구 질타

이틀 연속 쏟아진 물폭탄에 광주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광역시라는 위상이 무색할 정도로 침수피해 대책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자치단체에서 도로 배수구에 쌓인 낙엽을 치우는 등 하수도 관리만 했어도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은 대부분 매년 물에 잠기는 상습침수 구간이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간당 60mm의 비가 쏟아지는 등 오후 4시 기준 이틀간 서구 풍암동 242.5mm, 조선대 224mm, 북구 운암동 204.3mm, 북구 오룡동 194.5mm, 무등산 180mm, 광산구 용곡동 134.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호우 경보가 발효된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봉선동·백운동 일대는 도로가 침수돼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

백운동가 일대 대남대로는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차량들이 주월교차로부터 남광주농협까지 700여m를 통과하는데 40분 이상 정체됐다. 고가에 진입했던 차량들은 갑자기 내린 폭우로 한동안 고립됐으며 일부 차량들은 남광주농협 방면이 물에 잠겨 있자 주월동으로 차를 돌리기도 했다.

백운동교차로 인근 지하 1층에 자리잡은 59.5㎡(18평) 규모의 한 주점은 무릎 높이까지 물에 잠겼다.

업주 황홍철(47)씨는 “식재료와 영업용 가전제품까지 모두 물에 잠기고 악취까지 나 앞으로 어떻게 장사를 해야할지 막막하다”며 “일단 물을 밖으로 파내고 있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여 걱정”이

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백운동교차로 인근 상가 상인들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빗자루 등을 들고 막힌 배수구를 뚫고 있었다. 하지만 물에 잠긴 배수구 위치조차 찾기 힘들었고 뚫는다고 해도 금세 막히는 상황이 반복됐다.

봉선중앙로 131번길 일대도 사람 허리 높이(1m)까지 잠겨 통행하는 주민들이 감전 사고 등을 우려하며 조심스레 걷는 모습이였다. 이 일대에 주차해놓은 차량도 창문 높이까지 물이 찬 상황이었다.

시간당 65mm 비가 쏟아진 조선대교 일대도 침수돼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비는 이날 오후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밤사이 기압골이 다시 강화돼 28일 오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됐다. 또 30~31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백운동 일대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점에서 광주시·남구 등 지자체의 대비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송교천(68)씨는 “구청에 빗물받이 정소를 해달라고 민원을 수차례했지만 제대로 치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며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빗물받이를 직접 찾아 낙엽 등을 제거했더니 순식간에 물이 빠진 것으로 봤을 때 주기적인 청소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물폭탄을 퍼붓는 국지성 호우를 감안해 하수구 개선 등 빗물 관리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긴 이유도 도심 우수관이 밀려드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해 역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한 대학 교수는 “광주 하수도 시스템이 게릴라식 기습폭우 등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빗물을 관리하기 위해 도심 내 우수관 크기를 확대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2 달뜨기 20:17
해질 19:05 달짐 07:19

계속 흐려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면바다(동)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서부	면바다(서) 남동~남	1.0~2.0	남동~남	1.0~1.5

◇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보통	지외선	좋음	미세먼지
----	-----	----	-----	----	------

◇ 주간 날씨

	29(수)	30(목)	31(금)	9/1(토)	2(일)	3(월)	4(화)
날씨	☁	☁	☁	☁	☁	☁	☁
강수량	24/31	24/30	24/30	24/30	23/32	24/31	24/31

광주전남 광복회 내일 광덕고서 경술국치일 추념행사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경술국치일인 29일 오전 10시 광주 광덕고등학교 비전홀에서 '108주년 경술국치일 추념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주용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기관·단체장과 광복회원,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신태식 선생의 후손인 신홍수 광덕고 이사장의 경술국치 연혁보고, 광덕고 학생대표의 성명서 낭독, 규탄구호 제창, 고병돈 광복회 광주 전남 지부 유족

회장의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윤일일 수원여대 교수(안중근기념사업회 평화연구원 부원장)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한다. 행사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된 삶을 기리기 위한 ‘찬죽 먹기’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 이사장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해 참된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독립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갑질 파문 윤재승 대응계약 회장 “경영일선 퇴진”

윤재승 대응계약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윤 회장은 27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후 즉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저의 언행과 관련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업무

회와 보고과정 등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회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께도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저를 믿고 따라준 대응계약 임직원분들께도 사과는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회사 보고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정신병자 XX 아니야”, “미친 XX네” 등의 폭언을 일삼은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갑질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연합뉴스

태풍 비상에도 외유성 세미나 간 보성교육장과 교장들

장석웅교육감 “책임 묻겠다” 경위서 제출·특별 감사 주문

보성교육장과 보성지역 다수 학교장들이 태풍 비상에 따라 전남 전체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진 시기 외유성 제주도 연수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웅 교육감은 참가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지시했고 감사관실에 특정 감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하는 등 문책에 나섰다.

27일 전남도교육청과 보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보성교육청, 보성지역 초·중·고 교장 26명은 지난 21~24일 제주도로 혁신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이 제주도로 떠난 직후 보성을 비롯한 전남지역은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 들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22일자로 전남 전체 학교에 23일 휴업할 것을 지시하는 등 태풍 비상 상황이었다.

이번 연수에 대해 참가자들은 혁신학교

역량강화를 위해 사전에 확정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나, 전남교육청은 일부 선진 학교 답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퇴임을 앞둔 교육장과 학교장을 환송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장 교육감은 “보성교육청의 안전한 안전의식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학생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육장과 학교장들이 재난대비를 뒷전으로 하고 3일씩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목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검정고시 합격자 394명 73세 할머니 최고령 합격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도 제 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27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서 초졸 검정고시는 42명이 응시, 32명이 합격(76.2%)했다. 중졸은 98명이 응시, 72명이 합격(73.5%)했다. 고졸은 506명이 응시해 290명이 합격(57.3%)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은 73세 여성, 중졸은 67세, 고졸은 63세였다.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1세, 고졸 13세였다. /김형호 기자 khh@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 단위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 형 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 형 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일반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